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카드론 부실 논란 및 시사점

- 일부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대출인 카드론 증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‘제2의 카드대란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.
  - 2010년 카드론 실적은 2003년 37조원 이후 최고 수준인 23조 9,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42.3% 증가함.
  - 2010년 말 신용카드회사 총자산은 55조원으로 ‘카드사태’ 직전인 2002년 말 68조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무차별적 확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.
  - 일각에선 주요 금융기관의 분사를 통한 신용카드업의 경쟁격화는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.
  
-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‘2003년 카드사태’와는 달리 현재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양호하여 ‘제2의 카드대란’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함.
  - ‘2003년 카드사태’ 때는 신용카드회사의 실질 연체율이 28.3%에 달했으나 2010년 말에는 역대 최저인 1.7%를 나타냄.
  - 당기순손실은 2003년에 7조 7,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반면, 2010년에는 2조 7,000억원 흑자를 나타냈으며, 조정자기자본 비율도 2003년에는 -3.3%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10년에는 28.5%로 양호한 수준임.
  - ‘2003년 카드사태’의 영향으로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‘돌려막기’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음.
  
- 감독당국은 카드대란 위기론의 논리적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카드론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.
  -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카드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조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, 한은도 신용카드 문제가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.

(카드대란 우려 등, 연합뉴스 등, 4/15)